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경남 對베트남 수출입 변화와 FTA 효과

2023. 11

창원상공회의소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2015년 이후 발효 한·베트남 FTA가 경남 수출입과 산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 경남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방법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FTA 협정문 자료 분석

## 3. 조사기간

2023년 11월 1일 ~ 21일

## 4. 조사사항

- 경남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과 주요 교역품
- 경남 對베트남 주요 교역산업의 무역특화지수
- 경남 한·베트남FTA 수혜품목 실적 변화와 효과

## II. 요약 및 시사점

- 베트남은 경남의 떠오르는 신흥무역시장, FTA협정 이후 총교역액 53% 증가
  - 경남지역 수출액 12억 1,911만 불(비중 3.3%), 수입액 8억 384만 불(비중 2.6%)
  -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 부품, 전자부품 등 부품류와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22년 기준, 변압기(75.2%), 항공기엔진 부품(36.4%), 얇은종이(15.3%), 전기장치 부품(14.7%),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10.8%), 스테인리스강의 봉(10.2%) 등의 품목은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주요 수입품은 임산물, 섬유제품 등의 원자재와 전기기기 등  
22년 기준, 매니옥(카사바)(99.7%),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98.9%), 단일형 확성기(97.9%), 중형 섬유포장용기(97.3%) 등이 경남지역 수입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

###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수출특화품목의 수입액 대폭 증가

	2010년	2022년		2010년	2022년
철강제품	0.93	→ 0.72	수송기계	0.81	→ 0.23
전기기기	0.67	→ -0.33	기초산업기계	0.81	→ 0.14
비철금속제품	0.81	→ -0.08	산업기계	0.99	→ 0.75

※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수출경쟁력을 알아보는 지수로 활용됨.

- 경남 對베트남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 ‘전기기기’, ‘비철금속제품’ 수출특화품목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되었고, 수출특화품목들의 수입액 증가로 수출시장에서 협력국가로 변모
- 경남 對베트남 상위 50개 수출입 품목 2021년 이후 80%이상 관세철폐
    - 상위 50개 수출품(전체 43.8%) 중 수혜품목 19개(평균기본관세율 7.6%)  
13개 품목 기본세율 5%~10% 기본관세 철폐, 2개 품목은 관세유지
    - 상위 50개 수입품(전체 61.4%) 중 수혜품목 2개(평균기본관세율 14.0%)  
2개 수혜품목 8.0%~20.0%의 기본관세 철폐, 2개 품목은 관세 유지
  - 우리나라 베트남FTA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대비 저조
    - 수출활용률 54.0%, 수입활용률 86.9%,
    - 17개 협정국 중 수출활용률 13위, 수입활용률 5위
    - 수출이 수입보다 비교적 품목 양허 수준이 낮고 상대국 통관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같은 활용률 편차를 나타냄.
    - FTA 발효 이후 對베트남 교역액이 큰 폭으로 확대된 만큼 중첩구조로 형성된 베트남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II. 개 황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통상 정책의 기조<sup>1)</sup>를 FTA<sup>2)</sup> 중심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11월 기준 59개 국가와 21건의 FTA를 발효했음.
-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로, 그중 베트남은 인구 약 1억명이며, 매년 경제성장률을 5~6%에 달하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무역시장임.  
한·베트남 FTA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무역·투자 방벽 제거 및 사업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2015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발효된 바 있음. 발효 이후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의 낮은 활용률을 보완하고 기존의 FTA에서 더 많은 품목들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남지역 수출입에 있어 베트남은 2022년 기준 수출액 12억 1,911만 불, 수입액 8억 384만 불로 총교역액은 6위를 기록하였음. 또한 총교역액이 FTA발효 이전대비 53% 증가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무역상대국으로 성장하였음.
- 경남의 對베트남 무역수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베트남FTA 발효 이후에는 2016년 9억 994만 불, 2017년은 12억 1,714만 불(역대 최대 무역수지)로 8위를 기록하였음. 이처럼 베트남과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베트남 FTA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지역기업들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음.
- 동 보고서는 한·베트남FTA를 체결 전후의 통계를 분석하고 효과를 파악해, 한·베트남 FTA의 필요성을 조망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관의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함.

1) 1998년 11월 개최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공식 의결하고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후 세계 주요국가들과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음.

2)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 Ⅲ. 경남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과 주요 교역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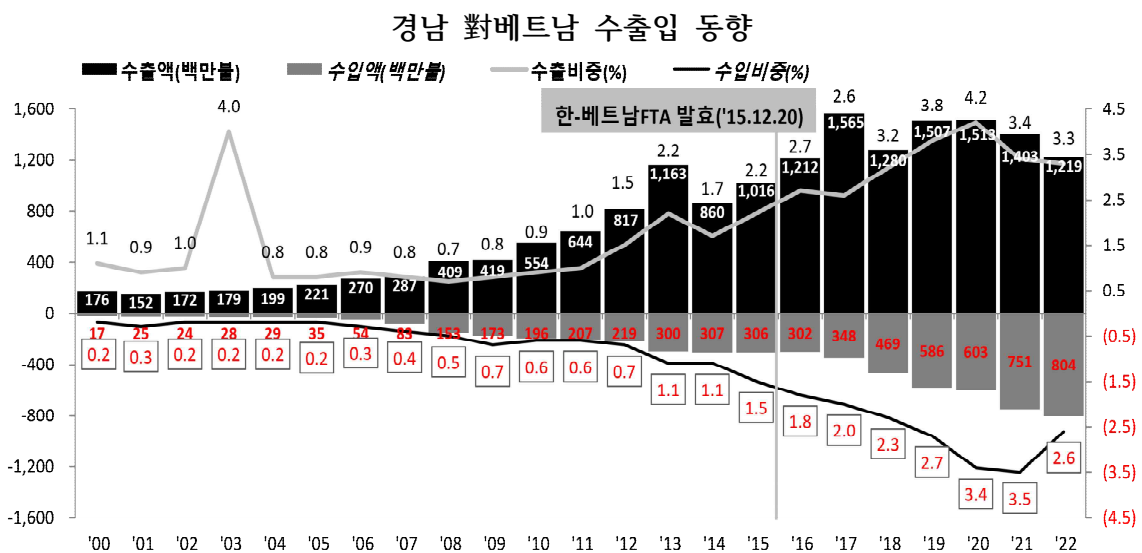
#### 1. 경남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

○ 경남지역 기준으로 2017년부터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신흥시장임. 수송기계 부품 전자부품 등 부품류와 철강제품, 플라스틱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수입의 경우 임산물, 섬유제품 등 원자재와 전기기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0년대 빠른 경제성장으로 경남의 對베트남 총 교역액은 한·아세안 FTA 협정 발표(2007.06) 이후 증가를 보였음. 또한 품목별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전장기기, 철강제품 등 신규 주요 제품의 수출 증가와 중간재, 원자재 등의 수입액 증가로 교역액 비중이 커졌음.

○ 베트남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을 함께 보이면서 경남지역과 꾸준히 교역액이 증가하였음. 2021년에는 對베트남 총 교역액이 17년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경남지역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음.

이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점과 동시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기지로 자리잡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자료 : KITA.NET>

## 2. 경남 對베트남 주요 교역품

### 1) 경남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

- 경남의 對베트남 수출품은 전기기기(HS 85류), 철강(HS 72류), 플라스틱 제품(HS 39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2022년 기준 경남의 對베트남 수출품은 ‘기타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 4,503만 불, ‘알루미늄 합금’ 2,828만 불,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2,692만 불, ‘변압기’ 2,577만 불, ‘자동차 차체 부품’ 2,440만 불, ‘기타 기계 및 기구’ 2,253만 불, ‘폴리우레탄’ 2만 불 등 기술집약적 품목과 그 부분품들이 주를 이룸.
- 경남의 對베트남 20대 수출품 중 기존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알루미늄 합금 제품’,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기타 기계 및 기구’, ‘폴리우레탄’, ‘평판압연제품(플라스틱 코팅)’, ‘기타 광학요소 재질(프리즘 등)’,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스테인리스강의 봉’, ‘음향기기 부품’, ‘인쇄회로’ 등으로 총 13개 품목임. 이들 품목은 한·베트남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는 한·베트남FTA 발효 전부터 한·아세안FTA로 인해 관세 철폐되었거나, 對베트남 주력 수출품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전기회로 접속용 기타 기기’(기본관세 5.0%), ‘변압기’(10.0%), ‘자동차 차체 부품’(15.0%), ‘필름 및 시트 등’(5.0%), ‘자동차 부품’(15.0%),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5.0%), ‘기타 조제 식료품’(5.0%) 총 7개 품목은 한·베트남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들로 발효 7년(8년차)이 된 현 시점에서 ‘변압기’(현재 5.0%), ‘자동차 차체 부품’(현재 15%), ‘자동차 부품’(현재 5%)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베트남 수출시장 내 비중<sup>3)</sup>을 보면, ‘변압기’의 경우 75.2%로 경남 對베트남 20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이 밖에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6.4%, ‘얇은 종이’ 15.3%, ‘전기기계 장치 부품’ 14.7%,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등’ 10.8%, ‘스테인

3) 동 품목 베트남 전체 수입에서 경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리스강의 봉' 10.2%, '필름 및 시트 등' 9.7%, '평판압연제품(플라스틱 코팅)' 8.4% 등의 품목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경남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2022년 수출액 기준)

품목 코드 (HS)	품 목 명	2022년 對베트남 수출액 (천불, %)	관세율 (%)			미국 수입내 비중 (%)	
			기본	한베 FTA	양허 유형		
1	853690	전기회로 접속용 기타 기기	45,032 (-42.6)	5.0	0.0	-	1.8%
2	760120	알루미늄 합금	28,280 (-19)	0.0	0.0	-	4.4%
3	841191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26,923 (252.9)	0.0	0.0	-	36.4%
4	850434	변압기	25,770 (5823.3)	10.0	5.0	S-2	75.2%
5	870829	자동차 차체 부품	24,402 (-51)	15.0	15.0	B-2	2.3%
6	847989	기타 기계 및 기구	22,529 (-0.1)	0.0	0.0	-	1.8%
7	390950	폴리우레탄	20,267 (-35.5)	0.0	0.0	-	3.3%
8	392010	필름 및 시트 등	19,879 (36.6)	5.0	0.0	-	9.7%
9	721070	평판압연제품(플라스틱 코팅)	19,614 (-12.6)	0.0	0.0	-	8.4%
10	870899	자동차 부품	18,686 (-65.6)	15.0	5.0	S-2	3.9%
11	900190	기타 광학요소 재질(프리즘 등)	18,003 (-62.7)	0.0	0.0	-	6.1%
12	720851	열연강판(두께 10mm 초과)	17,218 (7276.1)	0.0	0.0	-	2.5%
13	481092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	15,866 (37.2)	5.0	0.0	-	2.8%
14	721934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0.5mm이상, 1mm이하)	14,448 (35.2)	0.0	0.0	-	10.8%
15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	14,424 (66.3)	0.0	0.0	-	10.2%
16	851890	음향기기 부품	14,372 (6.9)	0.0	0.0	-	3.2%
17	853400	인쇄회로	14,010 (-25.4)	0.0	0.0	-	0.2%
18	210690	기타 조제 식료품	12,571 (43.5)	5.0	0.0	-	1.1%
19	481029	얇은 종이(필기용, 인쇄용)	11,857 (-8.7)	0.0	0.0	-	15.3%
20	854390	전기 기계 장치 부품	10,999 (0.5)	0.0	0.0	-	14.7%
총계		1,219,111 (-13.1)					

\* 한-베트남FTA 양허유형

S-2 :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S-3 : 2017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7년 1월 1일까지 20퍼센트로 인하되고,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그 인화된 세율이 유지되고,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A :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50퍼센트 이하로 인하한다.  
 B-2 :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FTA 관세율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

Y-1, Y-3, Y-5, Y-7, Y-8, Y-10, Y-15, E 양허유형은 협정문 참고  
 <자료 : KITA.NET, 관세법령정보포털, 산업통상자원부>

## 2) 주요수입품

- 경남의 對베트남 수입품은 기계류와 전자기기(85류, 87류)와 원자재성 제품(40류, 63류, 76류)이 주를 이룸. 2022년 기준 경남의 對베트남 수입품은 ‘천연고무’ 4,199만 불, ‘중형 섬유 포장용기’ 4,198만 불, ‘전선 및 케이블’ 3,875만 불, ‘교류전동기’ 3,344만 불,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 3,269만 불, ‘기타 동제품’ 2,692만 불,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2,688만 불, ‘린넨(화장실 및 주방용)’ 2,008만 불, ‘등임.
  
- 경남의 對베트남 20대 수입품 중 기존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천연고무’과 ‘중형 섬유 포장용기’, ‘전선 및 케이블’, ‘교류 전동기’ 등 19개 품목임. 이들 품목은 한-베트남FTA 발효 이전에도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져 기존 무관세를 지속하는 형태임. 반면, ‘매니옥(카사바)’(887.4%)은 20대 수입품 중 유일하게 현행 관세유지(양허유형 ‘E’)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경남 전체 수입 내 비중<sup>4)</sup>을 보면, ‘매니옥(카사바)’,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단일형 확성기’, ‘중형 섬유 포장용기’,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등 5개 품목은 95% 이상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이 밖에 ‘종이포장용기’ 94.7%, ‘린넨(화장실, 및 주방용)’ 92.6%, ‘기타 동제품 66.4%’, ‘장갑(플라스틱 및 고무코팅) 84.6%, ‘안경렌즈 72.7%’, ‘교류 전동기 51.4%’, ‘전열용 저항체 49.7%’ 등 주요 20개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입비중이 약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공품들과 반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베트남의 산업고도화로 인해 원자재 품목 중심에서 기술집약산업의 품목들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수입품목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FTA의 유효성을 알 수 있음.

4) 동 품목 경남 전체 수입에서 베트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경남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2022년 수입액 기준)

	품목 코드 (HS)	품 목 명	'23 상반기 對미 수입액 (천불, %)	관세율 (%)			경남 수입내 비중 (%)
				기본	한베 FTA	양허 유형	
1	400122	천연고무	41,992 (12.8)	0.0	0.0	-	21.8%
2	630532	중형 섬유 포장용기	41,976 (0)	0.0	0.0	-	97.3%
3	854442	전선 및 케이블	38,751 (-24.9)	0.0	0.0	-	30.5%
4	850152	교류 전동기 (출력 750W 초과 75KW 이하)	33,438 (37.1)	0.0	0.0	-	66.4%
5	84149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	32,693 (99.7)	0.0	0.0	-	21.2%
6	741110	기타 동제품(구리합금)	26,918 (16.1)	0.0	0.0	-	86.0%
7	841191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26,879 (47.6)	0.0	0.0	-	11.0%
8	630260	린넨(화장실 및 주방용)	20,081 (56.7)	0.0	0.0	-	92.6%
9	851821	단일형 확성기	18,289 (76.7)	0.0	0.0	-	97.9%
10	440131	목재 펠릿	16,541 (177.8)	0.0	0.0	-	40.0%
11	854340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15,889 (0)	0.0	0.0	-	95.4%
12	481920	종이포장용기	15,762 (8.1)	0.0	0.0	-	94.7%
13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14,576 (186.1)	0.0	0.0	-	98.9%
14	870829	자동차 차체의 부품 및 부속품	13,149 (-6.9)	0.0	0.0	-	47.3%
15	611610	장갑(플라스틱 및 고무 코팅)	12,952 (-1.2)	0.0	0.0	-	84.6%
16	870899	자동차 부품	12,579 (58.2)	0.0	0.0	-	23.3%
17	900150	안경렌즈	12,534 (0.9)	0.0	0.0	-	72.7%
18	760429	알루미늄 프로파일	12,074 (-24.2)	0.0	0.0	-	21.2%
19	071410	매니옥(카사바)	11,798 (45.2)	887.4	887.4	E	99.7%
20	851680	전열용 저항체	11,197 (192)	0.0	0.0	-	49.7%
총계			803,843 (-31.2)				

\* 한-베트남FTA 양허유형

S-1 :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B-1 :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FTA 관세율의 20퍼센트 이 상만큼 인하한다.  
 C : 2016년 1월 1일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FTA 관세율의 50퍼센트 이상 만큼 인하한다.  
 E :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Y-1, Y-3, Y-5, Y-7, Y-8, Y-10, Y-15, R 양허유형은 협정문 참고  
 <자료 : KITA.NET, 관세법령정보포털, 산업통상자원부>

## IV. 경남 對베트남 교역과 한·베트남FTA 효과

### 1. 경남 對베트남 주요 교역산업의 무역특화지수

- 경남과 베트남 간 이루어지는 주요 교역품목은 2022년 기준 철강제품, 진기기, 수송기계, 전자부품, 섬유제품, 비철금속제품,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임산물 등임.
- 이들 품목의 경남과 베트남 간 최근 15년의 무역특화지수<sup>5)</sup> 변화를 살펴보면, 한·베트남FTA 발효 전(2010년, 2013년)과 발효 후(2015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역액이 가장 큰 ‘철강제품’의 경우 2010년 ‘0.93’ 수준으로 경남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발효 후부터는 특화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수송기계’, ‘비철금속제품’, ‘기초산업기계’ 등에도 나타나 FTA 발효 후 수출 강제 품목들의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전기기기의 경우 수출특화 품목에서 수입특화 품목으로 전환되었음.
- 반면, 수입에 특화된 ‘섬유제품’의 경우 한·베트남FTA 발효 전인 2010년 ‘-0.52’ 수준으로 경남이 수입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발효 이후에는 ‘-0.65’으로 수입특화의 정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임산물’의 경우에는 완전수입특화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남 對베트남 주요 교역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 추이

연도	철강제품	전기기기	수송기계	전자부품	섬유제품	비철금속제품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임산물
'10	0.93	0.67	0.81	0.76	-0.52	0.68	0.81	0.99	0.06	-1.00
'13	0.89	0.66	0.69	0.97	-0.44	0.24	0.87	0.99	-0.19	-1.00
'16	0.79	0.55	0.70	0.96	-0.43	0.41	0.73	0.99	0.31	-1.00
'19	0.85	0.32	0.75	0.74	-0.62	0.04	0.65	0.57	0.09	-1.00
'22	0.72	-0.33	0.23	0.85	-0.65	-0.08	0.14	0.75	0.01	-1.00

<자료 : 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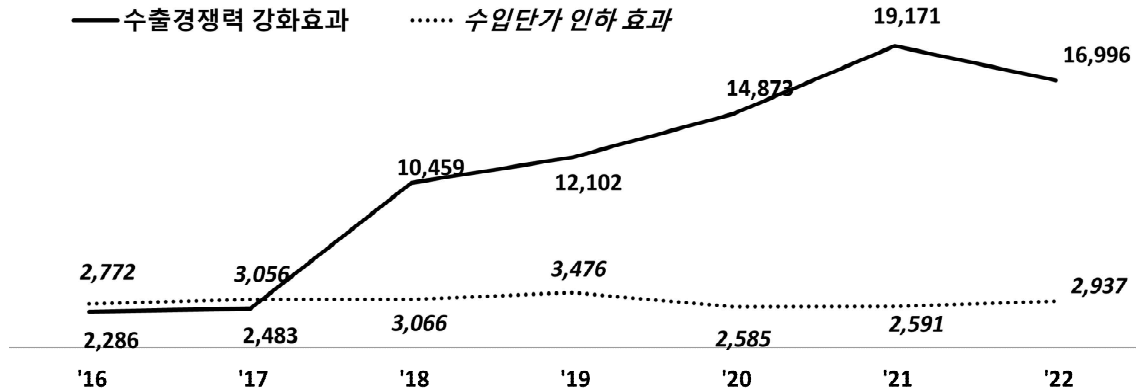
5)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특정 업종의 순수출액을 총교역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수출경쟁력을 알아보는 지수로 활용됨.

## 2. 경남 한·베트남FTA 수혜품목 실적 변화와 효과

- 한·베트남FTA가 발효된 2016년부터 2022년 간 경남 對베트남 상위 50개 수출입품(HS 6단위)을 대상(기존 무관세 품목 포함)으로 한·베트남FTA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인 수출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출의 43.8%) 중 19개(평균 기본관세율 7.6%)는 한·베트남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2개 품목은(평균 기본관세율 16.5%) 기준관세 유지, 나머지 29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0%로 FTA와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임.  
수입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입의 61.4%) 중 2개 품목(평균 기본관세율 14.0%)은 한·베트남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2개 품목은(평균 기본관세율 448.7%) 기준관세 유지, 나머지 46개 품목은 한·베트남FTA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진 품목임.  
경남의 對베트남 상위 50개 수입품목의 경우 한·아세안FTA를 거쳐 이미 FTA특혜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품목이 대부분임.
- 단계적 철폐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한·베트남FTA가 발효된 2016년의 수출의 경우 23억 1천만 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수출단가 경쟁력)를 얻었음. 이러한 수출단가 경쟁력 효과는 단계별 철폐에 따른 무관세 품목의 증가와 수출물량의 증가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22년의 경우 170억 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상대국 수입자의 수입단가를 낮춰 채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수출자에게는 수출 증대 가능성에 높여 수출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수입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실질 수입단가 인하효과는 2016년의 경우 단계적 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2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9억 4천만 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이는 한·베트남FTA의 경우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FTA에서 추가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효과는 있으나 수입단가 인하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한·베트남FTA 특혜관세 효과(수출입단가 인하 효과)

(단위 : 백만원)



※ 원화표시 환산은 연간 평균환율 적용

<자료 : 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V. 우리나라 한·베트남FTA 활용률과 향후과제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트남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54.0%, 수입 86.9% 수준으로 수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 17개 협정국<sup>6)</sup> 중 활용률 수출은 13위, 수입은 5위로 다른 FTA협정국 보다 수출 활용률이 현저히 낮음. 이는 FTA 적용금액 자체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비교적 양허수준이 낮고, 상대국 통관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어 이같은 낮은 활용률을 편차를 나타냄. 반면에 수입활용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높은 FTA활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이 요구됨.
- 베트남은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對베트남 교역이 큰 폭으로 확대된 만큼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방법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아세안FTA, 한·베트남 FTA, RCEP 등의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 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6) 싱가포르를 아세안에 포함, 2022년에 발효된 FTA는 미포함.

전국 협정국가별 수·출입 FTA 적용 금액 (활용률)

(단위 : 천불, %)

	수출			수입		
	'2021	'2022	증감률(%)	'2021	'2022	증감률(%)
캐나다	3,692,520 (95.3)	4,057,205 (94.6)	9.9 (-0.7p)	1,690,600 (66.3)	1,742,860 (62.0)	3.1 (-4.3p)
영국	2,776,203 (90.2)	3,010,324 (89.3)	8.4 (-0.9p)	2,826,982 (67.3)	2,526,400 (63.9)	-10.6 (-3.4p)
EU	30,267,927 (87.7)	32,382,969 (87.0)	7.0 (-0.7p)	35,338,306 (78.3)	36,656,320 (79.4)	3.7 (1.1p)
미국	41,274,233 (85.1)	52,296,351 (85.9)	26.7 (0.8p)	33,627,023 (73.6)	34,825,155 (70.1)	3.6 (-3.5p)
페루	117,348 (75.3)	208,232 (83.6)	77.4 (8.3p)	613,583 (59.3)	677,975 (82.4)	10.5 (23.1p)
호주	3,509,738 (80.1)	4,443,390 (81.8)	26.6 (1.7p)	10,859,335 (86.1)	10,325,768 (85.7)	-4.9 (-0.4p)
인도	7,777,542 (77.8)	9,161,533 (79.5)	17.8 (1.7p)	3,556,636 (54.0)	3,760,348 (55.2)	5.7 (1.2p)
튀르키예	4,426,231 (81.8)	4,475,679 (75.5)	1.1 (-6.3p)	533,003 (73.0)	518,716 (67.9)	-2.7 (-5.1p)
칠레	900,068 (63.6)	917,709 (66.3)	2.0 (2.7p)	2,727,267 (99.3)	4,337,383 (98.6)	59.0 (-0.7p)
중국	25,687,183 (64.7)	26,912,775 (63.3)	4.8 (-1.4p)	52,181,627 (87.0)	60,864,673 (88.5)	16.6 (1.5p)
EFTA	220,519 (71.0)	244,122 (61.4)	10.7 (-9.6p)	3,341,802 (69.6)	2,998,094 (75.7)	-10.3 (6.1p)
아세안	12,762,548 (52.0)	7,438,733 (58.1)	-41.7 (6.1p)	20,853,782 (82.7)	22,706,380 (84.4)	8.9 (1.7p)
베트남	5,757,289 (48.4)	7,568,153 (54.0)	31.5 (5.6p)	5,854,777 (86.6)	6,575,706 (86.9)	12.3 (0.3p)
콜롬비아	190,748 (52.8)	223,984 (49.1)	17.4 (-3.7p)	241,758 (94.2)	256,375 (93.0)	6.0 (-1.2p)
RCEP	-	1,673,851 (39.1)	-	-	2,716,275 (25.5)	-
뉴질랜드	125,425 (34.4)	122,784 (28.0)	-2.1 (-6.4p)	942,056 (93.6)	1,151,199 (94.8)	22.2 (1.2p)
중미	-	72,683 (25.9)	-	-	200,038 (68.9)	-

<자료 : 관세청>